

‘민심’보다 ‘당심’... 당원·대의원 표 막강 파워

민주당 '상향식 공천제도' 광주·전남 공청회

정치 신인 막고 계파공천 조장 '예비경선' 폐지 출마준비 후보자들 당원 모집 경쟁 과열 부작용

민주당은 모든 당직 및 공직선거에서 계파 공천 등을 배제하기 위해 예비경선(컷오프)을 폐지하고, 대의원과 당원들의 참여 비중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민주당 상향식 공천제도혁신위원회(위원장 조경태 최고위원)는 11일 광주시의회에서 '상향식 공천제도 광주·전남지역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공천 개혁안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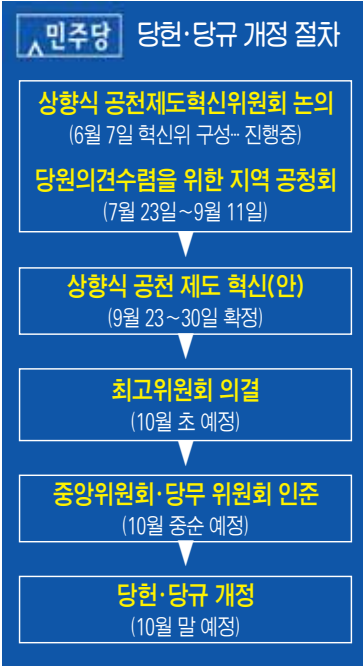
◇상향식 공천제도 기본방향=위원회의 '상향식 공천제도 개정방향'(잠정안)에 따르면 정치신인들의 정계 진출과 계파 공천 폐해를 없애기 위해 모든 당직 및 공직선거에서 예비경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당원·당규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경우 6명 이상, 당 대표 후보자가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8명 이상인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자 및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 경선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내년 6·4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은 해당 선거구의 '전국 대의원 30%+권리당원 40%+일반당원 및 당원이 아닌 유권자 30%(여론조사 포함할 수 있음)'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광역의원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지역 대의원 30%+권리당원 50%+일반당원 20%'로 선출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해당 시·도당 전국 대의원 50%+해당 시·도당 권리당원 50%'를 통해 선출한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해당 선거구 당원 50%+당원이 아닌 유권자 50%'로 선출하기로 했다.



50%(여론조사 포함)를 통해 뽑는다.

◇주요 쟁점=혁신위의 잠정안은 '민심'보다는 '당심' 비중을 크게 두면서 지역 내 정치신인들의 입지 폭이 대폭 줄어들고,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자 경선의 경우 30%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대의원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일반 유권자의 비율(30% 이하)이 낮아 민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당원 50% 이하, 당원 아닌 유권자 50% 이상이 참여해 광역단체장 후보를 뽑았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의원과 당원들의 표심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선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 대의원 비율을 최고 20%까지 축소하고, 권리당원 및 여론조사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역의원 경선안에 대해서도 당원외로만 선출할 것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의원 비중도 축소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아울러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 경선 방식도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과 수도권은 선거운동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될 우려가 있어 경선 방식이 조정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 상향식 공천제도혁신위원회는 이날 광주·전남지역 공청회를 끝으로 오는 23~30일 공천 안을 최종 확정해 최고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위의 공천안을 최종 손질한 뒤 중앙위원회·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당원·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상향식 공천제도 혁신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공청회를 열고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경태(최고위원) 상향식 공천제도 혁신위원장과 강태연 민주당시장, 조호권 광주시장의장을 비롯한 지방의원, 당직자,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보선 공심위 구성 위원장에 박기춘 사무총장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당도 11일 '10·30 재·보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본격적인 10월 재·보선 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심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심위는 박기춘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재·보선 기획단장인 안규백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강창일, 문병호, 최원식, 박수현, 민홍철, 정호준, 이인주, 전정희, 전순욱 의원과 오종기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임재훈 당 조직사무부총장, 안규욱 재·보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 등이 임명됐다.

“계파 영향력 배제... 당원에 공천권 돌려줄 것”

조경태 민주당 상향식공천제도혁신위원장 인터뷰

조경태 민주당 상향식 공천제도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민주당의 상향식 공천제도 혁신 기본 방향은 당 지도부 및 계파 간 공천 영향력을 배제하고,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모든 당직·공직 선거 후보 선출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계파 공천’ 및 특정 계파의 공천 횡포를 없애는 게 이번 공천제도 혁신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 신인들이 계파에 의해 치우치지 않도록 컷오프제도

를 없애는 방안도 마련했다”며 “컷오프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치 신인들에게 대폭적인 문호개방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지도부의 전략공천 비율을 30%에서 15%로 줄이고, 중앙위원 50%와 당원 배심원 50%로 선출하는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했다”며 “모바일 경선의 경우 그동안 인원 동원 우려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던 만큼 이번 기회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당원 중심’경선에 따라 민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당의 브랜드를 제대로 갖춘 후보라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것이다”며 “또한, 당원도 사실상 민심이기에 때문에 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당원 중심 경선으로 인해 후보들 간 당원 확보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당원 모집을 통한 동원 경선을 하는 후보의 경우 후보자를 확보하는 등의 제재 조치 등 부작용에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의원 세력과의 경쟁 전략에 대해서는 “안 의



원 세력 후보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당심은 곧 민심이기에 때문에 안 의원 세력보다 철저한 혁신과 개혁을 통해 참신한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송어찜에 탁주 한사발...방사능 걱정이 웬말?



(44) 자연 감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뉴스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먹을거리



김득신 작 '강상회음(江上會飲)'

에 관해 문갑한 편이지만, 문득 며칠 전 식탁에 올랐던 고등어구이와 갈치조림 등이 마음에 걸린다. 위험을 무릅쓰고 편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무모한 욕심에서 이런 뒤송송한 상황이 비롯되었을 것이다.

환경운동에도 참여했던 소설가 박경리 선생은 작고하기 전 “인간이란 모를지거 자연의 이자로만 삶을 꾸려야 한다”는 생태철학을 설파한 바 있다.그 ‘자연의 이자’로 살아왔던 우리 옛 조상들의 삶은 그런 작품이 요즘 새삼 절감된다.

조선 후기 정조 때 활동했던 풍속화가 금재 김득신(1754~1822)의 ‘강상회음(江上會飲)’은 강가에서 천렵을 즐기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다. 뱃전에 돛이 펄 수 있는 뉘싯대 위에 앉아서 생선 찌개를 노리는 물새들의 능실거리는 자세는 그림에 흥취를 더해 준다.

김득신은 김홍도를 가장 충실히 계승한 후배 화원으로 자신의 질박한 심상에 맞는 독창적이고 해학 넘치는 풍속도를 그려냈다. 특히 전가낙사(田家樂事)라 하여 서민들이 일하는 가운데 짬을 내어 즐기는 소박한 천렵이나 전원의 흥취를 그림에 많이 담았다.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시대 상황이었지만 송어찜 반찬 한 가지에 막걸리 반주한 잔일지라도 자연 그대로가 밥상이 될 수 있는 여유로움이 부럽기만 한 풍경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빛의만평

- 김중두



여전히 물과 돌이지

씻코

황사, 꽃가루, 미세먼지로 간지러운 코

콧속에 뿌리는 비강세척제 - 엔클 비액

- 배편효과! 만성비염(감염, 알레르기, 비종양)의 과용으로 인한 장막 건조 신속회 개선
- 무자극! 인체와 깊은 농도의 생리식염수농도로 자극적이지 않고 축축한 점막 유지
- 휴대편리!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살균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 은가죽이 상해해 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4각형 하기의 일관성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 비염, 비강 건조 증상의 완화
 용법·용량: 성인: 용기에 따라 2회 2~3회 비강세척제 2회 2~3회 비강세척제
 ※연령, 증상에 따라 약량에 조정하십시오

똥코

알레르기비염, 콧속염증으로 답답한 코

콧속에 뿌리는 비강혈청제 - 트인 비액

- 배편효과! 코막힘으로 인한 장막 건조와 점막의 불균형을 완화 신속회 효과로 답답한 비염
- 중성생리식염수 용액에 알레르기 비염, 부비강염으로 인해 코가 막히는 답답한 증상을 해소
- 휴대편리!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살균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 전신적인 작용 없이 코 안 환경에만 작용하는 4각형 하기의 일관성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 알레르기 비염, 부비강염, 상기도 알레르기 등에 의한 비염의 완화
 용법·용량: 성인 및 12세 이상 어린이: 용기에 따라 1일 4~5회, 약액 비강세척제 2~3회 비강세척제

제품문의 02)3489-6186 광고심의필: 1202-0705 인터넷 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의뢰하심요.

한림제약주식회사
http://www.hanlim.com